

군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밑그림

지역실정 반영 10월까지 수립 완료... 강우시 침수대응 강화 등 주민 피해 방지대책 마련

군산시는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침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군산시 지역실정에 맞는 하수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계획수립을 마무리한 후 환경부 최종 승인을 거쳐 하수처리구역 변경,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정비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활용된다.

기본계획(변경) 안에는 강우시 하수관로 및 침수대응 강화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수저류조, 배수펌프장 설치 등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수립 할 예정이며 군산시민의 특수성을 감안해 새만금지역 하수처리구역 설정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최대능력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강우시 분류식 하수도 관리개선을 위해 군산시 우수방류장치 및 차집관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확인·분석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영역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에 필요한 공중위생 향상, 생활환경개선과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 침수대응능력 향상, 방류수질 개선 등 도시여건변화를 꼼꼼히 반영하고 관내 하수관망 재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장현 기자

“불법광고물 가져오면 상품권 드려요”

군산시 수거보상제 시행 온누리상품권 교환 지급 쾌적한 도로 조성 '성과'

군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민원도 크게 줄이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서는 불법 벽보, 현수막, 전단, 명함형 전단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5천만원의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

며, 7월말 현재 약 3천만원의 보상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현수막, 도로 및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을 수거해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검사를 거쳐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상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책이다. 보상은 ▲현수막 5m이상은 5장, 미만은 8장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 ▲벽보는 30cm×40cm 이상은 40장, 미만은 60장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

권 1장 ▲전단은 21cm×18cm 이상은 100장, 미만은 400장(명함식 포함)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을 지급하며 1인당 1일 최대 5,000원권 2장, 월 40장까지이다. 이기간 건축경관과장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수거보상제와 별도로 2개조의 기동철거반을 365일 운영함을 물론 읍·면·동 사무소에서 관할 이면도로의 불법광고물을 자체 정비하고 있다”며, “옥외광고협회 등과 함께 민간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시 정비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 잇따라

군산경찰서 개학철 맞아 스쿨존·통학 차량 점검

군산경찰서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가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군산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안전에 대해 자동차 속도 저감시설, 미끄럼방지 시설, 인도와 차도분리 상태 등을 세밀히 점검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도착, 동승보호자 탑승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군산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군산경찰서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45개소의 어린이보호 구역이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은 436대가 등록돼 있다. 최원석 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어린이 통학차량 지도, 단속을 강화해 군산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군산=장현 기자

경로식당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군산시, 내달 1일까지 접수 복지지원과 방문신청만 가능 선정 시 3년간 위탁 운영

군산시는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을 위한 군산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기관의 공개모집에 나섰다. 수탁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정관의 목적사업에 노인복지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춘 법인이라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군산=장현 기자

향후 3년간 군산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할 기관을 선정하는 이번 공개모집의 서류 접수는 8월 28일에서 9월 1일까지 5일간 시청 복지지원과(☎ 454-3182)로 직접 방문(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해야 하며, 시에서는 서류접수를 완료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 위탁운영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경로식당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원 병공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보조금, 법인 기부금, 후원금품 등을 통해 1일 약 300여명, 연인원 12만 2,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군산=장현 기자

올 가을 김장 준비 시작 주말농장 채소재배 교육 익산시농기센터 진행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주말가족농장 회원들의 가을 김장을 대비해 지난 19일 오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대강당에서 배추, 무 등 김장용 채소 교육을 진행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주말가족농장 회원들의 요청이 가장 큰 김장용 채소 회원들이 잘 재배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익산시 도시농업의 방향 및 계획과 원예전문 지도사의 배추, 무 재배 기술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익산지역 김장채소 중 무의 과중적기를 8월 하순경으로 보고 있으며 배추 정식도 8월 하순경에 심는 것이 뿌리 활착이 빨라서 생육을 좋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을 시장은 “주말에 맡기는 100여명이 이용하는 주말가족농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휴일에도 전문지도사를 배치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주말농장에서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가족 간 사랑을 키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주말가족농장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익산시민의 자연체 학습습장 및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3월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전자추첨을 통해 2: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된 280가구를 주말가족농장 회원으로 선정했다. 회원들은 각자 포장에 고추, 고구마, 상추, 땅콩 등 30여종의 각종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익산시 모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복지허브화 실천을 위해 하반기에도 꾸준한 행보를 벌일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틈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만전

익산 모현동 복지허브화 사업 소외계층 발굴·지원 힘 쏟아

익산시 모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모현동 협의체')가 지역 복지허브화 실천을 위해 하반기에도 꾸준한 행보를 벌일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맞춤형복지계가 신설되고 모현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복지허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모현동 협의체를 통해 특수사업을 추진해 무난한 성과를 냈고, 금년 하반기 알찬 성과를 위해 끊임없는 추진을 하고 있다. 착한가정 15가구, 착한가게 17개소, 개인후원자 210명 등의 후원을 받아 후원금 700여만 원을 마련했으며, 상반기에는 저소득가정 아동

을 위한 '맘나무 키움' 학습지 지원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에 30가구를 선정해 지원을 마쳤다. 하반기에는 알찬 성과를 위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 30여 가구를 발굴해 새로운 두 가지 사업을 700만원 정도 추가해 진행할 계획이다. 정기운 모현동장과 맞춤형복지계 직원들은 현재 관내 경로당 등을 돌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서비스 지원에 대해 상세히 알리고 있다. 정기운 동장은 “모현동 협의체 회의를 통해 후원을 발굴하고, 내용이 충실한 사업구상을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모색해 복지허브화 익산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